

일과 행복 : 결혼의 효과*

이 경 희**

I. 머리말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일(work or labor)은 소득을 통해 재화의 소비를 가능토록 하기 때문에 개인의 효용(individual utility)을 증가시키는 반면, 여가(leisure) 시간을 감소시켜 효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일을 통한 소득 이외에도, 일을 통한 자아 실현이나 사회적 인정 또한 개인의 행복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 명소 외(2003)의 연구에서 보면,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남녀 모두 ‘성취 및 자기수용’을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Frey 외(2008)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실직(unemployment)은 일의 유무를 넘어 개인이 느끼는 상실감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이 일을 하는 것이 효용 또는 행복(happiness or subjective wellbeing)에 미치는 총 효과는 이론적으로 또는 선형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상기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긍정적인 양(+)의 효과, 또는 부정적인 음(-)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일과 행복의 관계는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인 결혼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결혼은 개인의 시간배분 - 직장일, 가사일, 여가 등에 대한 시간배분 - 과 이에 대한 만족도, 일을 통한 소득의 중요성 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 부담이나 개인여가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기혼 직장인이 미혼 직장인이나 전업주부에 비해 행복수준이 낮거나, 심지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일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직장일의 병행이 행복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사회조사』결과를 활용한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 2012)에 따르면,

* 이 글은 안주엽 외(2015), 『일과 행복(I)』 보고서 제9장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kheelee@kli.re.kr).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주관적 만족감에 대해, 워킹맘(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은 24%만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전업맘(만 18세 이하 미혼 자녀를 둔 미취업 여성)은 28%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불만족이라는 답은 워킹맘이 31%로 전업맘 25%보다 높았다. 한편, 기혼자의 경우 가족부양이라는 경제적 책임, 부담 때문에 미혼(결혼 전)자에 비해 일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의 주관적 만족감(2011) - 워킹맘 vs. 전업맘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여성 전체	23.9	5.5	18.4	48.3	27.8	7.1
워킹맘	24.1	4.6	19.5	45.3	30.6	9.1
전업맘	27.9	5.2	22.7	46.7	25.4	8.5

자료 : 통계청(2012),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주관적 만족감(2011) 표(p.3) 인용.

요컨대, 결혼은 그 자체로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행복의 또 다른 결정요인인 일의 효과를 좌우하는 요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행복’ 간의 관계에 있어 혼인상태, 배우자유무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혼인상태와 일의 상호작용 효과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유무에 따라 일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이러한 효과가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II. 연구방법론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개인 패널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15차(1998~2012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다양한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등에 대한 각 항

목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한다. 분석대상은 연구목적 - 혼인상태에 따라 일이 개인의 행복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것 - 을 감안하여 생산가능인구, 즉 만 15세 이상의 개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주요 관심변수인 행복수준은 5점 척도로 조사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변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2. 분석 모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통해 혼인상태에 따라 일이 행복(전반적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복수준($y_{i,t}^*$)은 식 (1)에서와 같이 개인의 혼인상태와 취업관련 요인, 기타 개인 및 가구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y_{i,t}^* = M'_{i,t} \beta_1 + E'_{i,t} \beta_2 + (M_{i,t} \times E_{i,t})' \beta_3 + X'_{i,t} \beta_4 + T_t + v_{i,t} \quad (1)$$

위 식에서 종속변수인 $y_{i,t}^*$ 는 개인 i 의 t 년도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M_{i,t}$ 는 개인 i 의 t 년도 혼인상태 변수이다. 혼인상태 변수는 배우자유무에 따라 기혼유배우와 무배우(미혼(결혼 전)·별거·이혼·사별 포함) 상태로 대별된다. $E_{i,t}$ 는 개인 i 의 t 년도 취업관련 변수로서 취업여부, 임금근로자 여부, 정규직 여부, 또는 전일제 여부 등을 나타내며, $M_{i,t} \times E_{i,t}$ 는 개인 i 의 t 년도 혼인상태 변수와 취업관련 변수의 상호작용항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이다. $X_{i,t}$ 는 개인 i 의 t 년도 기타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 벡터로서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가구주여부, 종교유무, 자가 여부, 거주지, 자녀 수 등을 포함한다. T_t 는 연도별 더미변수 벡터로서 시간에 따른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포함되었으며, $v_{i,t}$ 는 전체 잔차항(error term)이다. 전체 잔차항은 개인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u_i 와 분산이 σ_ϵ^2 이고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epsilon_{i,t}$ 의 합으로 구성($v_{i,t} = u_i + \epsilon_{i,t}$)된다.¹⁾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행복수준($y_{i,t}^*$)은 숨겨진 잠재 변수(latent variable)로 절대적인 수준이 직접 관측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서수적인 형태로만 관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전반적 생활만족도 변수는 5점 서열척도 - ‘매우 불만족스럽다’(1) ~ ‘매우 만족스럽다’(5) - 로서 N 이 5인 경우에 해당한다.

1)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주엽 외(2015) 제9장 참고.

$$y_{i,t} = \begin{cases} 1, & \text{if } y_{i,t}^* \leq \mu_1, \\ 2, & \text{if } \mu_1 < y_{i,t}^* \leq \mu_2, \\ 3, & \text{if } \mu_2 < y_{i,t}^* \leq \mu_3, \\ \vdots & \\ N, & \text{if } \mu_{N-1} < y_{i,t}^* \end{cases} \quad (2)$$

이러한 서열 정보와 식 (1)의 관계를 이용하여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면, 각 요인의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값인 β 값과 구간의 경계 값(cut)인 μ 값 등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패널 ordered probit 모형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계수 값을 추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혼인상태에 따른 일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각각의 표본에 대해 패널 ordered probit 모형을 추정 - 식 (1)의 $X_{i,t}$ 에서 성별 변수를 제외하고 추정 - 하고 혼인상태와 취업관련 변수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계수 값을 비교하였다.

III. 분석결과

혼인상태, 특히 배우자유무에 따라 일 - 취업여부²⁾ 또는 일의 형태(임금, 정규직, 전일제 여부 등) - 이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패널 ordered probit 모형 분석결과는 <표 1>~<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과 <표 2>에 나타나 있으며, 성별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각 분석결과에서 혼인상태에 따른 일의 효과는 혼인상태 변수와 일 관련 변수의 교차항의 계수 값을 통해 판별할 수 있다.

1. 전체 표본 분석결과

배우자유무별 - 기혼 유배우 vs. 무배우(미혼(결혼 이전), 별거·이혼, 사별 포함) - 취업여부

2) 비취업자 중 비경제활동 상태인 사람과 실업 상태인 사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취업여부의 효과는 크게 비취업 대비 취업, 비경활 대비 취업, 실업 대비 취업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비경활 및 실업에 대한 정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정의를 따른다. (1) 비경활(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지가 없거나(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실업자: 현재 비취업자이면서,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지난 주에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지난 1주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고, 지난 1주 동안 적당한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표 1 참조)를 보면, 취업과 결혼은 양(+)의 효과, 즉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기혼유배우자의 취업의 효과가 무배우자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활이나 실업 등의 비취업 상태에서 취업상태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기혼유배우자의 경우 무배우자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결혼에 따른 가정경제 부양의 책임 및 부담으로 인해 일이 개인의 생활만족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유무별 일 형태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표 2 참조)에서도 보면, 취업과 결혼은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취업 효과의 크기는 일의 형태에 따라 차이

〈표 1〉 배우자유무(기혼유배우/무배우)에 따른 취업의 효과 - 취업/비취업, 취업/비경활, 취업/실업

변수 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기혼유배우/무배우)×(취업/비취업)	0.0702***		
취업/비취업 [취업=1]	0.2297***		
(기혼유배우/무배우)×(취업/비경활)		0.0789***	
취업/비경활 [취업=1]		0.1455***	
(기혼유배우/무배우)×(취업/실업)			0.1903***
취업/실업 [취업=1]			0.5543***
성별 [남성=1]	-0.1934***	-0.1690***	-0.1213***
연령	-0.0494***	-0.0434***	-0.0448***
연령제곱	0.0004***	0.0004***	0.0004***
기혼유배우/무배우(별거 · 이혼 · 사별 · 미혼(혼전))	0.4408***	0.4179***	0.3362***
고등학교 졸업 미만	0.1731***	0.1696***	0.2688***
고등학교 졸업	0.3387***	0.3504***	0.5335***
대학교 재학 및 중퇴	0.5389***	0.5047***	0.7445***
전문대학교 졸업	0.5572***	0.5759***	0.7895***
대학교 졸업 이상	0.7644***	0.7892***	1.0583***
log 가구총소득(개인근로소득 제외)	0.1396***	0.1406***	0.0906***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2147***	0.2306***	0.2908***
종교 유무 [종교 있음=1]	0.1207***	0.1202***	0.1141***
자가 여부 [자가=1]	0.2945***	0.2988***	0.2984***
거주지 [대도시=1]	-0.1178***	-0.1202***	-0.1162***
자녀 수	-0.0756***	-0.0794***	-0.0826***
N	129,317	124,071	66,936
N of id	20,752	20,525	13,726

주 : 1) 연도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지면관계상 생략.

2) *** p<0.01, ** p<0.05, * p<0.1

〈표 2〉 배우자유무(기혼유배우/무배우)에 따른 일의 형태의 효과
- 임금/비임금/비취업, 정규직/비정규직/비취업, 전일제/시간제/비취업

변수명	모형 4	모형 5	모형 6
(기혼유배우/무배우)×임금 여부	0.0761 ***		
임금근로자 여부 [임금=1]	0.2328 ***		
(기혼유배우/무배우)×비임금 여부	0.0626		
비임금근로자 여부 [비임금=1]	0.2112 ***		
(기혼유배우/무배우)×정규직 여부		0.1500 ***	
정규직 여부 [정규직=1]		0.3326 ***	
(기혼유배우/무배우)×비정규직 여부		-0.0007	
비정규직 여부 [비정규직=1]		0.1214 ***	
(기혼유배우/무배우)×전일제 여부			0.0911 ***
전일제 여부 [전일제=1]			0.2782 ***
(기혼유배우/무배우)×시간제 여부			-0.0186
시간제 여부 [시간제=1]			0.1049 ***
성별 [남성=1]	-0.1917 ***	-0.2132 ***	-0.2111 ***
연령	-0.0492 ***	-0.0485 ***	-0.0503 ***
연령제곱	0.0004 ***	0.0004 ***	0.0005 ***
기혼유배우/무배우(별거·이혼·사별·미혼(혼전))	0.4401 ***	0.4324 ***	0.4470 ***
고등학교 졸업 미만	0.1739 ***	0.1938 ***	0.1758 ***
고등학교 졸업	0.3389 ***	0.3300 ***	0.3227 ***
대학교 재학 및 중퇴	0.5396 ***	0.5524 ***	0.5452 ***
전문대학교 졸업	0.5564 ***	0.5340 ***	0.5448 ***
대학교 졸업 이상	0.7635 ***	0.7348 ***	0.7607 ***
log 가구총소득(개인근로소득 제외)	0.1397 ***	0.1623 ***	0.1609 ***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2147 ***	0.1850 ***	0.2002 ***
종교 유무 [종교 있음=1]	0.1213 ***	0.1220 ***	0.1214 ***
자가 여부 [자가=1]	0.2952 ***	0.2834 ***	0.2849 ***
거주지 [대도시=1]	-0.1180 ***	-0.1264 ***	-0.1250 ***
자녀 수	-0.0756 ***	-0.0881 ***	-0.0837 ***
N	129,138	113,491	113,395
N of id	20,746	19,413	19,410

주 : 1) 연도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지면관계상 생략.

2) *** p<0.01, ** p<0.05, * p<0.1

를 보였는데, 비임금에 비해 임금근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의 경우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유무와 일 형태의 상호 작용 효과는 고용의 질 - 예. 고용 및 소득 안정성 등 -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 즉 임금근로, 정규직, 전일제의 경우에만 비취업과 대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취업 상태에서 임금근로, 정규직, 전일제 취업상태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기혼유배우자의 경우 무배우자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경향을 보였다. 비임금근로, 비정규직, 시간제와 같은 형태로의 취업의 효과는 기혼유배우자와 무배우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취업여부에서 더 나아가 고용환경, 고용의 질적인 특성이 기혼자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일 수 있다.

나머지 다른 변수들의 효과는 대체로 선행연구 결과와 질적으로 동일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 무종교인에 비해 종교인, 가구주 또는 자가소유자인 경우, 대도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학력 또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적을수록 개인의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음(-),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그 감소하는 정도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작아지는 비선형적 형태 - 예. 일정 연령 이후 양(+)의 효과로 바뀌는 U자형 - 를 보였다. 지면관계상 분석결과표에서는 생략된 연도별 효과는 최근으로 올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2. 성별 분석결과

배우자유무에 따른 취업여부 및 일 형태의 효과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남녀 간에 큰 차이, 상반된 방향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취업여부에 따른 결과(표 3 참조)를 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남성의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표본에 대해 분석한 것과 동일한 결과, 즉 기혼유배우자의 취업의 효과가 무배우자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기혼유배우자의 취업의 효과가 무배우자의 경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³⁾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에 따른 가정경제 부양의 책임 등으로 인해 취업이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정도가 기혼자에게 있어 더 큰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에 따른 가사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개인 여가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기혼자가 취업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의 형태에 따른 결과(표 4 참조)에서도, 배우자유무와 일 형태 더미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남성의 경우에는 양(+), 여성의 경우에는 음(-)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결과 중 배우자유무에 따른 비임금 및 시간제 취업의 효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남성 집단에서, 배우자유무와 일 형태의 상호작용 효과는, 고용 및 소득 안정성 등 고용의 질

3) 실업 대비 취업의 효과를 분석한 모형 3의 결과에서, 여성의 경우 배우자유무와 취업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음(-)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3〉 배우자유무(기혼유배우/무배우)에 따른 취업 효과의 성별 차이
- 취업/비취업, 취업/비경활, 취업/실업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남	여	남	여	남	여
(유배우/무배우)×(취업/비취업)	0.2954 ***	-0.1017 ***				
취업/비취업 [취업=1]	0.3125 ***	0.2192 ***				
(유배우/무배우)×(취업/비경활)			0.2757 ***	-0.0755 ***		
취업/비경활 [취업=1]			0.2206 ***	0.1576 ***		
(유배우/무배우)×(취업/실업)					0.3933 ***	-0.0533
취업/실업 [취업=1]					0.5622 ***	0.5595 ***
연령	-0.0737 ***	-0.0348 ***	-0.0661 ***	-0.0313 ***	-0.0587 ***	-0.0276 ***
연령제곱	0.0007 ***	0.0003 ***	0.0006 ***	0.0003 ***	0.0005 ***	0.0002 ***
유배우/무배우 [기혼유배우=1]	0.3051 ***	0.4740 ***	0.3163 ***	0.4474 ***	0.1761 ***	0.5067 ***
고등학교 졸업 미만	0.3417 ***	0.1959 ***	0.3405 ***	0.2012 ***	0.4204 ***	0.191 **
고등학교 졸업	0.5052 ***	0.3857 ***	0.5255 ***	0.3972 ***	0.6606 ***	0.4922 ***
대학교 재학 및 중퇴	0.7153 ***	0.5797 ***	0.6782 ***	0.5652 ***	0.8307 ***	0.7593 ***
전문대학교 졸업	0.7090 ***	0.6126 ***	0.7306 ***	0.6319 ***	0.8764 ***	0.7901 ***
대학교 졸업 이상	0.9503 ***	0.7900 ***	0.9797 ***	0.8132 ***	1.1800 ***	1.0150 ***
log가구총소득(개인근로소득 제외)	0.0918 ***	0.2380 ***	0.0908 ***	0.2379 ***	0.0593 ***	0.1772 ***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2452 ***	0.2574 ***	0.2511 ***	0.2588 ***	0.2800 ***	0.3109 ***
종교 유무 [종교 있음=1]	0.1315 ***	0.0956 ***	0.1341 ***	0.0941 ***	0.1295 ***	0.0875 ***
자가 여부 [자가=1]	0.3435 ***	0.2504 ***	0.3492 ***	0.2545 ***	0.3064 ***	0.2718 ***
거주지 [대도시=1]	-0.0963 ***	-0.1296 ***	-0.1029 ***	-0.1289 ***	-0.1067 ***	-0.1277 ***
자녀 수	-0.0749 ***	-0.1091 ***	-0.0756 ***	-0.1142 ***	-0.0677 ***	-0.1178 ***
N	59,896	69,421	57,022	67,049	39,490	27,446
N of id	10,381	10,371	10,234	10,291	7,728	5,998

주 : 1) 연도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지면관계상 생략.

2) *** p<0.01, ** p<0.05, * p<0.1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의 일, 즉 임금근로, 정규직, 전일제 취업의 경우가 비임금근로, 비정규직, 시간제 취업의 경우보다 큰 것 - 무배우자에 비해 기혼유배우자의 생활만족도 증진 효과가 비임금근로, 비정규직, 시간제 취업에 비해 임금근로, 정규직, 전일제 취업의 경우 더 큰 것 - 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근로, 전일제 형태로의 취업은 무배우자에 비해 기혼유배우자의 생활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덜 증가시키는 반면, 비임금근로, 시간제로의 취업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또한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기혼유배우자의 생활만족도 증진 효과를 무배우자에 비해 저하시키는 정도가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에 의한 정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임금근로나 전일제 형태의 일은 비임금근로나 시간제 형태의 일에 비해 근로시간이 더 길거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일·가정 양립 부담으로 인

해 시간사용에 제약이 많은 기혼 직장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더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배우자유무(기혼유배우/무배우)에 따른 일 형태 효과의 성별 차이
- 임금/비임금/비취업, 정규직/비정규직/비취업, 전일제/시간제/비취업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남	여	남	여	남	여
(유배우/무배우)×임금	0.3243 ***	-0.1038 ***				
임금근로자 여부 [임금=1]	0.3187 ***	0.2213 ***				
(유배우/무배우)×비임금	0.2799 ***	-0.0869				
비임금근로자 여부 [비임금=1]	0.2690 ***	0.2014 ***				
(유배우/무배우)×정규직			0.4148 ***	-0.0662 **		
정규직 여부 [정규직=1]			0.4404 ***	0.2959 ***		
(유배우/무배우)×비정규직			0.2601 ***	-0.1136 ***		
비정규직 여부 [비정규직=1]			0.1634 ***	0.1238 ***		
(유배우/무배우)×전일제					0.3437 ***	-0.1033 ***
전일제 여부 [전일제=1]					0.3674 ***	0.2557 ***
(유배우/무배우)×시간제					0.1820 **	-0.0935
시간제 여부 [시간제=1]					0.1484 **	0.1127 **
연령	-0.0729 ***	-0.0348 ***	-0.0740 ***	-0.0345 ***	-0.0766 ***	-0.0354 ***
연령제곱	0.0007 ***	0.0003 ***	0.0007 ***	0.0003 ***	0.0007 ***	0.0003 ***
유배우/무배우 [기혼유배우=1]	0.2932 ***	0.4745 ***	0.2281 ***	0.4783 ***	0.2719 ***	0.4850 ***
고등학교 졸업 미만	0.3436 ***	0.1958 ***	0.3576 ***	0.2043 ***	0.3278 ***	0.2012 ***
고등학교 졸업	0.5048 ***	0.3850 ***	0.4725 ***	0.3790 ***	0.4681 ***	0.3798 ***
대학교 재학 및 중퇴	0.7154 ***	0.5798 ***	0.7182 ***	0.5877 ***	0.7103 ***	0.5877 ***
전문대학교 졸업	0.7048 ***	0.6114 ***	0.6546 ***	0.6012 ***	0.6768 ***	0.6102 ***
대학교 졸업 이상	0.9426 ***	0.7905 ***	0.8937 ***	0.7700 ***	0.9357 ***	0.7860 ***
log가구총소득(개인근로소득 제외)	0.0919 ***	0.2384 ***	0.1147 ***	0.2505 ***	0.1111 ***	0.2516 ***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2420 ***	0.2590 ***	0.2506 ***	0.2536 ***	0.2620 ***	0.2585 ***
종교 유무 [종교 있음=1]	0.1328 ***	0.0958 ***	0.1341 ***	0.0962 ***	0.1315 ***	0.0959 ***
자가 여부 [자가=1]	0.3461 ***	0.2510 ***	0.3344 ***	0.2486 ***	0.3370 ***	0.2490 ***
거주지 [대도시=1]	-0.0980 ***	-0.1294 ***	-0.1026 ***	-0.1412 ***	-0.1013 ***	-0.1403 ***
자녀 수	-0.0752 ***	-0.1088 ***	-0.0995 ***	-0.1150 ***	-0.0897 ***	-0.1152 ***
N	59,790	69,348	48,894	64,597	48,819	64,576
N of id	10,375	10,371	9,351	10,062	9,348	10,062

주 : 1) 연도별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지면관계상 생략.

2) *** p<0.01, ** p<0.05, * p<0.1

나머지 다른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표본에 대해 분석한 결과와 부호나 유의성 면에서 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효과의 크기에 있어서는 남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남성에게서 더 큰 효과를 보인 변수들은 연령, 학력, 종교 유무, 자가 여부 등이었으며, 이외 변수들은 여성의 경우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IV. 맺음말

일은 개인의 소득 및 소비, 자아실현, 사회적 인정, 여가시간 등에 변화를 주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의 행복 효과는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인 결혼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결혼은 개인의 시간배분 - 직장일, 가사일, 여가 등에 대한 시간배분 - 과 이에 대한 만족도, 일을 통한 소득의 중요성 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개인 패널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15차(1998~2012년 조사) 자료와 패널 ordered probit 분석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혼인상태를 배우자유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의 행복 효과가 기혼유배우자의 경우 무배우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고용의 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의 일, 즉 임금근로, 정규직, 전일제 형태로의 취업의 생활만족도 증진 효과가 기혼유배우자의 경우 무배우자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경향을 보였다. 둘째, 혼인상태에 따른 일의 행복효과에 있어 남녀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녀 표본을 구분하여 배우자유무에 따른 일의 행복 효과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녀 간에 상반된 방향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여부에 따른 결과를 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남성의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표본에 대해 분석한 것과 동일한 결과, 즉 기혼유배우자의 취업의 행복 효과가 무배우자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기혼유배우자의 취업의 행복 효과가 무배우자의 경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두 번째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여성고용률과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혼에 따른 여성의 상대적 불리함, 예를 들어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 일방적 부담 등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기혼여성의 자발적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탈퇴를 방지하고 고용률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L**

[참고문헌]

- 김명소 · 김혜원 · 한영석 · 임지영(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2(2), pp.1~33.
- 안주엽 · 이경희 · 길현종 · 오선정 · 김주영 · 김종숙 · 김난숙(2015), 『일과 행복(I)』,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27-01,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2012),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2012. 6. 26).
- Frey, B., A. Stutzer, B. Matthias, S. Meier, S. Luechinger, and C. Benesch(2008),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The MIT Press.